

#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깨우친 삶의 아름다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정현석 지음/트러스트북스/1만5천원

“가고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녀온 지금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 말하고 싶다. 그곳을 떠나올 때는 내가 여기 올 일은 다시는 없겠다 싶었으나 며칠 지나니 웬걸 탄자니아의 모든 것이 그리워진다. 아름다운 새소리, 시원한 바람, 향긋한 냄새, 친절할 사람들, 맑고 파란 하늘, 흙먼지, 밤하늘의 별, 아이들의 미소, 심지어 불편한 환경까지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 가운데 어딘가 아련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열흘간의 선교여행서 느낀 감정 담아내

도서 판매수의 전액 가라투지역 학교에 기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여행을 다녀온 저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자기 고백적인 필체로 담아낸 기독교 에세이가 최근 출간됐다. 정현석씨가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 책은 자기 고백적인 필체로 담담히 써내려간 기독교적 색채의 에세이다. 머나먼 탄자니아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지며, 생생한 현장감과 섬세한 영성이 한데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책은 탄자니아 곳곳에서 느낀 일들이 기록돼 있다. ‘눈물의 세족식’, ‘두드러기’, ‘벌 소동’, ‘탄자니아에서의 라면 맛’ 등 현지에서 겪은 경험들이 생생하게 담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여행에서 저자 정현석씨가 만난 아이들. /책 발제

겨 있다. 또한 저자가 만난 사람들과 그때의 풍경 등이 아름다운 사진으로 수록돼 있어 독자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전한다. 저자는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의 미소는 아름다웠고 웃음 남루해도 태도는 당당했으며 하루 한 끼의 식사에도 항상 감사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그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탄자니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든 최단기 학교였다”고 강조했다. 저자 정현석은 ‘현대문예’와 ‘문학춘추’를 통해 수필로 등단, 문단에 입문했다. 저서로는 ‘환경정보마당’, ‘꿈꾸는 느티나무’, ‘행복한 동행’, ‘따뜻한 동행’ 등이 있다. 현재 수질환경관련 회사인 ㈜그린하이텍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상과 영산강환경청장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전남환경산업협회 이사과 광주극동방송 부위원장, CBMC남광주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탄자니아 가라투지역 아우리치 선교센터 내 뉴 비전스쿨의 학교 강당 건립을 위해 기부된다. /정겨울기자

## ‘2018년 광주문화재단 백서’ 발간

문화시설 150곳 배포...재단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2018년 한 해의 성과와 이야기가 담긴 ‘2018 광주문화재단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광주문화재단 백서는 재단의 경영 및 사업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로 2011년 설립 이후 총 8권이 발간됐다.

2018 광주문화재단 백서에는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재

단의 한 해 결과물과 바뀐 CI 등 이모저모가 담겨 총 123페이지로 구성됐다.

‘2018 주요성과’, ‘숫자로 보는 2018’ 등 주요성과는 그래픽을 활용해 내용 파악이 쉽도록 디자인했고, 사업내용은 문화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진 위주로 담았다.

사업소개는 ▲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시민문화 ▲문화공간 ▲

문화소통 ▲문화나눔으로 구성돼 있으며, 딱딱한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누구나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 설명이 추가돼 있다.

지원부서에서 진행한 업무 내용도 수록해 재단의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록인 ‘포스터로 보는 재단의 2018’을 통해 재단의 한 해 홍보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18 광주문화재단 백서는 유관기관, 광주 주요대학 및 문화시설 등 150여곳에



‘2018 광주문화재단 백서’ /광주문화재단 제공

배포했으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정겨울기자

## 작은 책방의 매력...독립 서점에 바치는 찬사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에 붙이는 각주’ ‘앞으로의 책방 독본’

작은 동네 서점에는 특유의 매력이 있다. 곳곳에 남은 책방 가운데에는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된 곳도 있다. 최근에는 개성적인 책방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에 붙이는 각주’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의 멋진 서점 75 곳을 소개하는 그림에세이집이다.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밥 엑스타

인은 2년에 걸쳐 세계의 주목할 만한 서점을 찾아다녔다.

책은 서점의 역사와 함께 그곳에서 만난 주인과 직원, 손님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여기에 각 서점을 직접 그린 따뜻한 일러스트를 더했다. 현대문학, 최세희 옮김. 192쪽, 2만3천원.

‘앞으로의 책방 독본’은 출판업계에서 15년간 일한 저자가 책방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한 내용을 풀어낸 책이다. 우치누마 산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에 붙이는 각주’



‘앞으로의 책방 독본’

는 그는 출판사도 운영한다. 그러면서 각각도로 책과 출판업에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시대에 작은 책방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제시한다.

먼저 왜 많은 사람이 책방에 애착을 가지는지 책과 책방의 매력에 대해 말한다. 이어 작은 책방을 이어가기 위한 사고방식부터 도서 매일 방법까지 실용적인 내용도 설명한다. 터닝포인트. 양지운 옮김. 468쪽, 1만6천500원. /연합뉴스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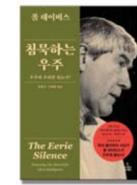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펴낸 추모시집.

신경림, 김준태 등 원로 시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안도현 전 민주통합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등 현실 정치에 참여한 시인을 비롯해 현역 문인 53명이 참여했다. 캘리그라피 33명도 참여해 각각의 시 제목과 일부를 캘리그라프로 삽입했다.

과거 권력자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이름을 날린 신경림 시인은 시 ‘당신의 부활, 그 찬란한 부활’을 썼다.

‘당신은 부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고 저세상으로 가는 대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저세상으로 가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손에 박힌 못을 어루만지며/ 지금 우리 앞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육천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육천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고 있습니다’(당신의 부활, 그 찬란한 부활’ 일부) /견는사람·1만2천원.



▲침묵하는 우주 = 폴 데이비스 지음. 문흥규·이명현 옮김.

인류는 ‘우주에 우리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다.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외계 지성체 탐색(SETI)’ 프로젝트는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훑는 전파천문학을 활용해 또 다른 생명체를 찾는 연구다.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온 저자는 책에서 지난 노력의 한계와 교훈을 짚어본다. 아울러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상상할 수 있는 외계 문명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주에서 인류가 유일한 존재인지, 생명과 지성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한다. /사이언스북스·2만2천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 미국의 촉망받는 신예 작가 앤드루 포터가 쓴 동명 단편소설을 비롯해 단편 10편을 모은 소설집.

포터는 2008년 단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으로 우수한 단편에 시상하는 플래너리 오코너상을 받았다.

단편집에 실린 작품들은 우리 삶의 궤적과 성장통을 이야기하며 어루만지며 인류 보편의 감정에 호소한다.

정교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삶의 편린을 포착하는 작가적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문학동네·1만3천800원.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을 창설하고 지휘한 약산 김원봉을 소재로 쓴 역사소설.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며 일제 요인 암살과 주요 기관 공격을 시도하고 해방 전후엔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이끈 백범 김구와 미묘한 대립 관계를 이어간다.

1948년 월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검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내각 수상 김일성, 부수장 박헌영 등과 함께 북한 수뇌부로 활동했다.

소설은 논란이 많은 해방 이후 행적은 다루지 않고 주로 의열단의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소설가 김하늘이 썼다. /북로그림파니·1만5천원.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